



연중 제15주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 가톨릭마산

## 必需品필수품

해외여행도 좀 그렇지만, 해외에서 살아 보신 분들은 이삿짐이 큰 문제입니다. 짐을 받을 곳이 있거나, 받아 줄 사람이 있으면 미리 부치면 되겠지만, 없다면? 저는 무식하게 몽땅 싸 들고 다닙니다. 28인치 가방은 수화물로, 20인치 가방은 기내용으로, 배낭 하나는 둘러매고 2년 만에 귀국하는데 무게가 걸린 것입니다. 공항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물건을 버리는데 어찌나 서럽던지 ... 그런데 서러움이 단숨에 사라졌는데, 그 이유는 옆에서 저처럼 물건을 빼는 동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서로 뺄 뺄는지 말없이 바라보며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 뺄 수 없는 필수품은 당연히 여권과 항공권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일단 국내에 들어올 수 있고, 빈손이라도 국내에 들어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꼭 필요한 물건은 뭘까요? 코로나라서 마스크? 여름이라서 에어컨? 휴대폰, 자동차, 의식주의 해결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신앙생활에서는 필요한 것은 성사생활을 비롯해 믿음, 소망, 사랑 등 손꼽을 것이 많은데, 오늘 복음에서는 뜬금없이 '지팡이'라고 합니다. 지팡이가 말고는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 하시고, 신발은 신되 옷도 두 벌은 끼입지 말라는 말쑤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의외로 지팡이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무기가 되니 어느 정도의 믿음을 주기도 하고, 자신의 두 다리로 걸어가기 힘들 때 도움이 되니 나름의 희망을 주기도 하며, 누군가 물에 빠지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구해줄 수 있으니 사랑의 실천도 할 수 있습니다.

늘 부족한 우리가 악한 영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를 고쳐 주다 보면, 주님의 능력을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하는 교만에 빠질 수도 있고, 소유가 힘이 되는 세상에만 집착하면 주님의 권한을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진 것을 모두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품을 챙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못 들은 척 이것저것 준비해 봐야 저처럼 입국심사 때 걸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팡이처럼 생긴 고가의 물품들 말고, 꼭 필요한 자신만의 지팡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애써 짐 싸놓은 것이 아깝고, 버리는 것이 서러울 수도 있지만 부족한 것은 하느님께서 채워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느님의 부르심과 파견에 기꺼이 응답하는 필수품 준비를 함께 노력해 봅시다. 아멘



신명균 마르티노 신부 | 태평동본당 주임



제 1 독 서 아모 7,12-15  
화 답 송 ©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제 2 독 서 에페 1,3-14 또는 에페 1,3-10  
복 음 마르 6,7-13

주일 진레



## 임마누엘 장학회 후원자 미담

어느 주일 미사 후 교우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아가다(가명) 자매가 다가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여 쉼터로 갔다.

그 자매에게는 “예수님 통장”이 있다고 했다. 그 통장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할 때마다 조금씩 입금을 해 왔고, 지금 어느 정도의 금액이 모여 의미 있는 곳에 그 돈을 사용하고 싶으니 쓰일 곳을 소개해 달라고 하였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양한 사회복지시설과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이들이 스쳐가는 중에 머무는 곳이 있었다.

몇 년 전에 마산교구청에서 소임을 할 때 임마누엘 장학회의 후원금이 줄고 은행 이자까지 낮아져 지원할 장학금이 적어진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 기억났다.

그래서 아가다 자매에게 ‘임마누엘 장학회’를 소개하자 선뜻 그쪽으로 입금을 하겠다고 하면서 아주 기뻐하며 돌아갔다.

다음날, 아가다 자매가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송금을 하려고 하자 담당업무를 하던 부지점장이 “사모님! 1천만 원을 왜 재단 법인에 송금을 하시나요?”

“한 신부님이 사재를 털고, 여러 은인들의 도움으로 설립한 장학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후원금이 줄어 지원할 장학금이 줄어든다고 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보냅니다.”

“그렇다면 저도 조금 보태 1백만 원을 송금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덤으로 더 얹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아가다 자매는 전화로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면서 위의 내용을 들려주었다.

본당에서는 다양한 교우들을 만난다.

겉멋만 들어서 아름답게 꾸미고 다니지만 마음은 초라한 사람. 우아하게 허세를 부리는 사람.

부드러운 향수의 내음을 풍기면서 역겨운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 자신을 높이려고 스펙만 늘어놓는 사람.

오래전 했던 단체장을 지금도 입으로 하고 있는 사람.

아가다 자매는 평소 너무나 수수하고 소박하게 하고 다녀서 그리 넉넉한 삶을 산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조금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의 차림새와는 거리가 멀었고, 이야기를 나눌 때면 언제나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게 너무 많아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하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보통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

아가다 자매와의 이번 일을 겪으면서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참된 행복은 하느님께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게 해 준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것을 이웃과 나누지 않는다면 초라한 마음의 가난뱅이로 살 수 있고, 동시에 자신이 가진 것을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으로 여기며 이웃과 나누는 가난한 마음으로 산다면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는 부유한 이가 될 것이다. 어떻게 살 것인가는 각자의 몫이다.

‘임마누엘 장학회’에 따뜻한 손길들이 모여 아직도 학비의 어려움 때문에 자신의 꿈을 펴는 데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희망이 되길 기도해 본다. 아울러 장학회를 설립한 신부님의 선한 지향이 계속 열매 맺어가도록 우리 교우들이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두 손 모은다.

마산교구청에서 소임한 어느 수녀

코로나19로 일상 속에서 많은 것들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는 것으로, 모여야 함에도 모이지 못하는 것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생각나고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있습니다. “똑똑히 들어라, 여기 있는 형제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주지 않는 것이 곧 나에게 해 주지 않는 것이다.”(마태 25,45)

천주교 마산교구 임마누엘 장학회 후원자 여러분께도 은총과 나눔의 풍성한 열매 맺기를 희망합니다. 어려운 살림살이에서도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여유는 나와 이웃을 함께 기쁨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은총입니다.

2021년 7월 11일

천주교 마산교구 임마누엘 장학회 이사장 총대리 최봉원 신부

### ■ 후원 계좌 안내

국민은행 651-01-0800-750

예금주:(재)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후원금은 연말 정산 세금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장학 사업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뜻깊은 일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바랍니다.



# “갈망 없는 존재가 되기를 갈망하라”

박재찬 안셀모 신부/ 분도 명상의 집

“미운 사람이 생겼어요. 화가 나고 그 사람과 말하고 싶지 않아요. 입은 닫았지만 생각과 상상력은 제 마음을 시끄럽게 하고 늘 그 사람이 제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진정 바라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거듭 묵상할수록 저는 참 부질없는 것들을 바라고 갈망하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지나가고 말 것들에 집착하고 있는 제가 어떻게 하면 더 영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내적 고독과 침묵을 방해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TV, 인터넷 등 정보와 영상의 홍수 속에서 현대인들은 고요히 있는 것을 불안해합니다. 어떤 이는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처럼 TV를 켜고 자기 전에는 유튜브를 켜 놓고 잔다고 합니다. 심지어 기도할 때에도 참으로 많은 말을 하고, 많은 간청을 주님께 드립니다. 외부에서 들려오는 무수한 소음들은 자신의 자아와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솟아나는 무수한 사람과 일에 대한 속 시끄러운 소리들은 하느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토마스 머튼 신부님은 이러한 우리 시대의 많은 문제들은 “침묵하기 보다 오히려 분석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머튼에게 있어서 침묵은 단순한 혀의 침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혀의 침묵뿐만 아니라 눈의 침묵, 상상력의 침묵과 갈망의 침묵을 강조합니다. 특히 그는 하느님께 대한 위로를 갈망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하기를 갈망하라고 강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위로해 주기를 갈망하지 마라. 무엇보다도 그분을 사랑하기를 갈망하라. 다른 이들이 하느님 안에서 위로를 발견하게 만들려고 마음 졸이며 갈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이 하느님을 사랑하도록 돕고자 갈망하라.”(인간은 섬이 아니다) 이러한 갈망의 침묵은 우리와 하느님 사이의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 침묵은 우리를 하느님 안에 살게 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복음 선포는 말보다 삶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언어를 복음화’ 하는 내적 정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적 침묵은 하느님의 소리를 듣기 위한 준비이며 수행입니다. 주님 앞에 침묵하며 마음을 비우며 기다리던 어느 날 그분은 고요한 미풍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이성적 추론이나 상상력을 넘어 존재 전체의 침묵 속에서 홀로 그분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말 없는 침묵 속에서 우리의 존재가 복음이 되어갑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와의 침묵의 만남은 자신의 전존재를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침묵의 열매입니다. 영적인 침묵은 다른 말로 영적인 친교communion이며 기도의 깊은 일치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느님과의 깊은 영적 일치는 인간의 언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침묵은 하느님의 침묵을 깨닫게 합니다.

영적인 침묵은 사랑하는 하느님과의 완전한 일치로 더 이상 아무런 바람이나 갈망이 없는 상태를 지향합니다. 머튼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영적 생활을 하고 싶다면 삶을 단일화單一化해야 한다. 당신의 삶을 단일화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갈망을 단일화하라. 당신의 삶을 영성화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갈망을 영성화 하라. 당신의 갈망을 영성화하기 위해서는 **갈망 없이 존재하기를 갈망하라.**”(고독 속의 명상) 우리의 내적 침묵은 더 이상 아무런 갈망 없이 단순히 그분과 일치하기 위해 나의 말과 생각과 삶을 그분께 온전히 집중하고 봉헌하기 위한 것입니다. 침묵은 많은 외적 걱정과 내적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 줄 것입니다. 침묵은 영원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 한 가족, 안전한 우리 집 같은 성당으로 가꾸는 고성성당

황광지 가타리나



고성성당의 젖 큰 자라는 “본당 묘지!”라고 서슴지 않고 차형호 발다살 회장이 말하자 한주인 마태오 주임 신부도 곁에 앉은 신자들도 맞장구를 친다. 고성성당 신자만이 갈 수 있는 묘역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위안이 되는 일인지. 1년 이상 교무금을 납부한 신자면 누구라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고성군 기월리에 1961년 땅을 매입하였고, 설치허가를 받아 공사하여 1964년부터 사용하게 된 묘원이다. 예전에는 주로 매장이었으나 지금은 납골묘를 많이 조성하고 있어 묘역은 여전히 넉넉하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 80년을 지나 100년을 향한

고성성당의 자람이 어디 이뿐이라. 거제지구라고 하지만 진주지구와 마산지구로 드나드는 교통 요지에 놓여 소통의 역할을 톡톡히 담당한다. 1939년 5월에 본당으로 설립되어 2019년 80주년을 맞이하며 3년 전부터 신자들이 힘을 모았다. 고성읍 성내리 현재의 자리에 1957년 건축한 고성성당은 지금도 그 모양 그때의 모습이 다. 당시 신자들이 손수 벽돌을 짚어 지은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집이지만 이젠 낡고 좁고 초라하다. 성전신축은 장기계획이 필요하므로 우선 내부는 바닥 나무를 대리석으로 바꾸고 스테인드글라스를 설치하는 등 손을 썼다. 성전외부도 유지하기 위한 공사에 주력했다. 오래된 종탑의 보존을 위해 무거운 종은 내려, 성전 옆에





전시하여 신자들의 기운을 돋우었다. 성당의 담을 허물고 운치 있게 조경공사를 실행하였고, 입구에 있던 사무실을 안쪽으로 옮기며 요모조모 실용성을 갖추었다. 많은 신자들이 기금을 후원하고 노동력도 제공하며 서로 격려하였다. 다행히 코로나 세상이 되기 전 2019년 5월 본당 설립 80주년에는 견진성사와 함께 기념행사를 기쁘게 치를 수 있었다. 28인승 본당 버스도 마련하였고, 성당 전역에 펼쳐진 사진 전시회는 신자들에게 역사를 일깨우고 자부심을 갖게 하는 시간이었다. 팀별로 펼쳐진 민속놀이로 한바탕 웃음을 자아냈다. 6월에는 바자회를 열어 수익금은 100주년 준비 발전기금으로 적립했다. 100주년을 향해 가는 고성성당은 새로운 성전을 설계하고 준비하고 있다. 오래된 이 성전은 근래에 보기 드문 건축물이므로 문화재로 신청 중이며 새로운 건축이라는 과업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 공소도 우리 자랑, 추억도 우리 자랑

한주인 신부는 관할 세 공소가 나름대로 특징을 가지며 본당의 역사에 있어서나 본당 구성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2018년에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황리공소는 뿌리 깊고 큰집다운 모습이다. 35명 정도의 신자들이 거의 자리를 지킨다. 본당으로서의 역사를 지닌 곳이라 공소로 되고, 교통이 열악하고, 공동체의 고령화로 상실감이 있겠지만 신앙의 열망이 크다. 상리공소는 20명 정도의 신자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수도회와 가까이 있어 자연스레 영성이 남다르고 신앙생활이 성숙하다. 배둔공소는 새로운 변화를 누리고 있다. 수도회에서 공소사목에 파견한 이병우 루카 신부에 의해 매일 미사가 이루어져 신자들의 생활을 활기치게 한다. 그밖에 원로사제 조영희 신부는 상리공소를, 이형수 몬시뇰은 황리공소를 지원하고 있어 공소 신자들의 신심을 풍요롭게 하고 있다.

고성에서 나고 자라고 모태신앙이라는 차형호 발다살 회장은 청소년시절을 무척 그리워한다. 여름신앙학교 때 허철수 학사님이랑, 배진구 학사님이랑 뛰어다녔던 기억이 생생하다. 성당에 있던 학사님 방에서 놀던 재미가 쏠쏠했고, 부모님도 성당에서 놀았다고 하면 모두 허용되었던 시절이다. 김영순 노엘라 사무장은 20여 년 전 사제관과 수녀원을 리모델링한다고 진 빚을 갚기 위해 온 신자들이 미숫가루 장사를 했던 일이 잊혀지지 않는단다. 옛날 방식으로 곡물 7가지를 찌서 말리느라 옥상이란 옥상은 성당이고 가정이고 발 디딜 데가 없었다. 정성껏 손질한 ‘고성 미숫가루’를 교구의 성당마다 끌고 다니며 팔았던 시간, 그 과정이 진한 향기로 남아있다. 조숙경 글라라 부회장은 본당을 위해 지금부터 열심히 일해 보려고 한다. 16년 전쯤 심적 육적으로 매우 아플 때 세례를 받았다. 그 직후 북신동성당에 첫미사가 있다고 따라갔는데, 강복을 받고 가슴에 깊이 남았다. 알고 보니 그때 그 새 사제가 바로 “우리 신부님!”이라고 활짝 웃음을 담는다.

## 공동체에 힘을 보태는 구성원

이렇게 구성원들은 공동체에 힘을 보태며 본당의 역사를 쌓는다. 신자들의 고령화는 고성성당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르신들이 즐거움을 갖고 신앙생활에 임하는 자세가 좋다. 때로 앞줄에 앉으려는 경쟁이 심하기도 하지만, 주님 가까이에 이르려는 모습이 아름답다. 한동안 뜸했는데 현재 신학생이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3명이나 되어 본당 신자들의 어깨가 으쓱하다. 게다가 예비신학생도 한 명 있으니 그야말로 신바람이다. 신학생이 생기려면 주일학교의 운영이 중요하다. 일본성지순례, 제주도성지순례 등을 기획하여 청소년들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본당 예산을 편성할 때 주일학교에 두둑하게 편성한다는 의지가 따랐다. 예산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본당 공동체의 중요 구성원으로 대우하는 자세도 또한 필요하다. 성모의 밤에도 성인신자 시낭송과 더불어 초등학생과 중고학생이 각각 자신이 직접 쓴 글을 성모님께 낭송하도록 했다. 현재 초등 30명 정도, 중고 20명 정도 학생들을 잘 보듬고 가꾸어 꽃을 피워야 한다.

한주인 신부는 코로나 시대에 방역을 철저히 하여 ‘안전한 우리 집’ 같은 성당을 만들고자 한다. 안전하다고 느끼면 점차 신자들이 늘어나고 맘 놓고 전례에 참여할 것이다. 공간은 협소하지만, 강당과 식당 등을 이용하여 쾌적한 환경으로 미사에 참례하게 하고 하느님을 ‘대면’하며 살아가도록 돕는다.





일림

## 교구/본당

### 전국 홍보국장 회의(화상 회의)

일시: 7월 14일(수)

### 전국 성소국장 회의(화상 회의)

일시: 7월 16일(금)

### 말씀 봉사자 종강 미사

일시: 7월 13일(화) 14:00

장소: 교구청

### 그라츠 자매교구 위원회

일시: 7월 15일(목) 11:00

장소: 교구청

### 신학교 지원자, 부제 대상자 신체검사 및 지원자 피정

일시: 7월 17일(토)~18일(주일) 1박 2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 신임교리교사 연수 1과정(비대면)

일시: 7월 18일(주일)

사전모임-7월 17일(토) 13:00

### 47차 탈출기 연수

탈출기 성경그룹공부를 이수한 청년을 대상으로 노트검사와 연수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코로나19'관련 대응 지침에 따라 첫째날, 둘째날은 'ZOOM'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셋째날, 넷째날은 숙박하지 않고 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일시: 8월 19일(목), 20일(금) 19:40~22:00

비대면('ZOOM')

8월 21일(토) 10:00~21:00

### 마산가톨릭교육관

8월 22일(주일) 10:00~16:00

### 마산가톨릭교육관

강사: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

대상: 창세기 연수 이수 및 탈출기 성경그룹 공부를 수행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청년

참가비: 4만 원

문의: 010·2961·9918(최수미 루피나),

010·6245·4967(임기호 보니파시오)

▶파견미사: 8월 22일(주일) 15:00

## 위원회/기관/단체

### 208차 ME주말 안내

일시: 7월 16일(금) 19:00~18일(주일) 17:30

2박 3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혼인한 지 3년 이상 된 부부

문의: 한진우(미카엘)·문희숙(미카엘라) 부부

010·9150·8738, 010·6281·7859

### 마리아사제운동 평신도 체나콜로 7월 기도 모임

일시: 7월 19일(월) 13:00~15:00

장소: 교구청 1층 대강당

준비물: 메세지 책, 미사 준비

문의: 회장 010·9399·5454

## 기타

###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훈련생모집

기간: 8월 23일(월)~2022년 3월

내용: 기계가공, CAD/CAM

혜택: 교육비, 기숙사무료, 수당지급

문의: 02·828·3600/ 대상: 만 15세 이상 남자

※ 최근 5년 평균 취업률 89.2%

## 교구청 직원 모집

홍보국에서 함께 일할 임시직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 임시직 1명(2021. 7. 15.~2022. 7. 31.)

접수: 7월 14일(수)까지 도착분에 한함  
(우편 혹은 방문)

특이사항: 홍보국 업무 보조, 컴퓨터 능통자  
(웹디자인, 웹서버 관리 가능자)

주소: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천주교 마산교구청 사무처(우 51727)

문의: 사무처 055·249·7019

▶면접일자 개별통보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마산교구 법원 이용 안내

혼인과 관련된 일들로 성사 생활이 어려운 신자들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주십시오.

문의: 교구 법원 055·249·7111,  
010·7123·4506



| 수도회 성소자 모임        | 일시              | 장소         | 문의                                 | 비고                  |
|-------------------|-----------------|------------|------------------------------------|---------------------|
|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 7월 17일(토) 14:00 | 서울 개화동 수도원 | 010·3800·1579/ vocationoh@daum.net | 보건 및 복지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 |

|                                                                                                                                                                                                                                                                                                                     |                                                                                                                                                                                                                                         |                                                                                                                                                                                                                                                                                                                   |                                                                                                                                                                                                                                    |
|---------------------------------------------------------------------------------------------------------------------------------------------------------------------------------------------------------------------------------------------------------------------------------------------------------------------|-----------------------------------------------------------------------------------------------------------------------------------------------------------------------------------------------------------------------------------------|-------------------------------------------------------------------------------------------------------------------------------------------------------------------------------------------------------------------------------------------------------------------------------------------------------------------|------------------------------------------------------------------------------------------------------------------------------------------------------------------------------------------------------------------------------------|
| <p><b>가톨릭 트래블</b><br/>올레길 425Km 24박 25일<br/>제주교구 성지 7곳 순례 일정<br/>289만원(2021년 9월 27일/매월 출발)<br/>070-4086-0207 www.catravel.co.kr</p> <hr/> <p><b>마산 예경요양병원</b><br/>(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br/><b>마산 예경병원</b><br/>(알코올 및 정신 질환)<br/>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br/>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1-592-8329<br/>*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p> | <p><b>천차만차</b><br/><b>대동모터스 매매 31호</b></p> <p>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br/>창원시 의창구 무억로 489(팔용동)<br/>구자롱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br/>055)288-1137<br/>010-6299-1137</p>  | <p><b>트래피스트 수녀원</b><br/>100% 유기농 잼</p>  <p>딸기잼, 무화과잼, 귤잼 410g<br/>(포도잼은 9월 말부터 구매 가능)<br/>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br/>선물용 환영합니다.<br/>• 수녀원 직영 쇼핑몰<br/>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br/>문의 및 전화주문: 010-2652-0706</p> | <p><b>신세계피부비뇨기과</b><br/>피부질환 / 비뇨기질환 · 수술 / 전립선암 검진</p> <p>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층<br/>(자유시장 사거리)</p> <p>원장 김인구 베네딕토<br/>055.757.9888~9</p> <hr/> <p><b>가톨릭마산</b><br/><b>교구보배너 광고</b><br/><b>신청받습니다</b><br/>■ 문의: 홍보국 055.249.7072</p> |
|---------------------------------------------------------------------------------------------------------------------------------------------------------------------------------------------------------------------------------------------------------------------------------------------------------------------|-----------------------------------------------------------------------------------------------------------------------------------------------------------------------------------------------------------------------------------------|-------------------------------------------------------------------------------------------------------------------------------------------------------------------------------------------------------------------------------------------------------------------------------------------------------------------|------------------------------------------------------------------------------------------------------------------------------------------------------------------------------------------------------------------------------------|





일 름

## 창원성산종합사회복지관 2021 여름김장 나누기

### 여름이니까~ 여름김장

무더위에 식욕부진까지  
어려운 이웃에게는 올여름도  
걱정입니다.  
복지사각에 놓여 더 힘겨운  
우리 이웃을 위해 올해도 여름김장을 담급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이웃에게 여름김장을 선물해  
주세요.

단기모금기간: 7월 13일(화)까지

후원계좌: 농협 301-0083-8432-91, 성산복지관

※ 후원시 복지관으로 연락주세요.

문의: 창원성산종합사회복지관 055·282·3737



## 제15회 마산교구 가톨릭문학 신인상 공모

- **자 격:** 등단하지 않은 교구 천주교 신자
- **분 야:** 시 5편 이상/ 수필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2편/  
소설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1편/  
동화 30매 내외 1편
- **접수처:** 천주교 마산교구 홍보국(51727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 **마 감:** 9월 30일(목) 도착분
- **당선자:** 각 부문 교구장 상패와 상금 50만 원  
(소설 70만 원)
- **기 타:** 타지에 발표되지 않은 순수 문학작품이어야 함,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유의사항:** 작품 말미에 E-mail,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세레명, 소속 본당을 명기할 것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겉봉투에는 '가톨릭문학 신인상 응모'라고  
명기할 것  
워드로 원고를 작성할 때에는 마지막 장에  
원고지 매수를 기록할 것



## 교구 소식

### 거창본당 웅양공소, 가지리공소 성전 봉헌식



거창본당(주임: 구성진 올리아노 신부) 관할 웅양공소와 가지리공소가 성전 봉헌식을 가졌다. 웅양공소는 5월 22일 구성진 신부의 주례로 봉헌되었으며, 조영희 아나니아 신부(원로사목자)가 함께하였다. 가지리공소는 6월 26일 성모당 및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였다. 이날 봉헌식에는 허성규 베드로 신부(원로사목자)가 참석하여 함께 미사를 봉헌하였다.



# 요셉과 형들의 화해와 용서

김영선 루시아 수녀 / 광주가톨릭대학교

지금 우리는 이집트에 와 있습니다. 요셉은 30세에 파라오 다음가는 재상이 되었습니다. 외국인인 요셉이 파라오의 재상이 되는 일이 역사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역사적인 가능성으로 보자면 이집트 역사상 히소스 시대라 일컬어지는 기원전 17세기 중반에서 16세기 중반쯤이 될 것입니다. 히소스는 이집트어로 외국인을 말합니다. 당시에 이집트를 다스렸던 외국인의 정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후르족, 레반트에서 온 셈족, 가나안족 등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외국인인 요셉이 이집트의 재상이 될 수 있는 시기는 아마도 이 시기였을 것입니다.

파라오의 꿈이 알려준 대로 과연 이집트에는 7년간의 대풍이 들었고, 이때 요셉은 양식을 잘 저장해두었습니다. 이어서 7년 동안 흉년이 계속되었고, 그 결과 이집트뿐만 아니라 가나안 전역에 기근이 발생하였습니다. 오직 이집트에만 곡식이 있었기에 온 세상이 곡식을 사기 위해 이집트로 몰려들었고, 야곱도 아들 열을 이집트로 보내어 곡식을 사 오게 하였습니다.

요셉은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을 염탐꾼이라고 몰아붙이며 시험합니다. 요셉은 막내아우를 데려오지 않는 한 아무도 이집트를 떠날 수 없다고 말하며 그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3일이 지나자 그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져간 후 막내아우를 데려오라고 다시 제안하였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이 일이 그들이 요셉에게 한 악행에 대한 죗값이라고 해석합니다. 요셉은 이 말을 듣고 물러 나와 울었습니다(창세 42,24). 결국 시메온이 감옥에 갇히고 나머지 형제들은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들의 보고를 들은 야곱은 요셉도 잃은 데다 이제는 시메온마저 이집트에 투옥되었고, 다시 벤야민마저 잃게 된 상황을 두고 슬퍼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다시 곡식을 사러 이집트로 내려갈 때 야곱은 벤야민을 데려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같은 어머니 라헬이 낳은 친동생 벤야민을 보고 감정이 북받쳐 안방으로 들어가 울었습니다. 이어서 요셉은 자기 관리인에게 형제들의 곡식 자루를 채워 주고 벤야민의 자루에 점칠 때 사용하는 자신의 은잔을 집어넣게 하였습니다. 형제들이 떠난 후 요셉의 관리인이 뒤쫓아가 그들의 곡식 자루를 조사하자 벤야민의 곡식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요셉의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요셉은 벤야민만 남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라고 말하였지만 유다가 벤야민의 모든 죄를 자신이 짊어지겠다고 나섭니다. 아버지가 벤야민을 몹시 사랑하며, 그 애 없이는 사실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은 더는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다른 이들을 물러가게 한 후 파라오의 궁에도 들릴 정도로 형제들 앞에서 목 놓아 울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는 어렵고 힘들기만 했던 자신의 삶이 사실은 자기 집안을 위한 하느님의 크신 섭리에 따른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그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리게 한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느님의 섭리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근이 5년 더 지속될 것이므로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와 이집트의 고센 지방에 정착하라고 형들에게 말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인간의 악에서도 선을 끌어내시는 하느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한 찬가라 할 수 있습니다.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꾸밈지만, 하느님께서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그분께서 이루신 것처럼, 큰 백성을 살리시려는 것이었습니다.”(창세 50,20)